

때의 부름: 수여자가 되어라.

오늘 가장 고양된 행운의 수여자, 모든 힘의 수여자인 밥다다는 세계 곳곳의 그의 자녀들을 보며 기쁘다. 너희들이 마두반에 직접 앉아있든 혹은 이 바라트나 해외에서 기억 속에 앉아서 이 만남을 듣고 보고 있든, 너희들이 그 어느 곳에 앉아 있든 상관없이, 너희들의 마음속에서는 너희들이 직접 밥다다 앞에 있다. 그래서 밥다다는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보며 행복하다. 너희들 모두 역시 행복하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 자녀들은 행복하고 밥다다 역시 행복하다. 이러한 가슴으로부터의 끊임없고 진정한 행복은 전 세계의 모든 슬픔을 제거할 것이다. 너희 가슴속의 이 행복감은 영혼들이 아버지를 경험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모든 영혼들의 끊임없는 봉사자이며 너희 모든 자녀들은 아버지의 봉사의 동반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모두 동반자이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은 아버지의 동반자이고, 너희는 세상의 슬픔을 변화시키며 지속적인 행복을 주는 봉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너희들은 끊임없는 봉사자들이다. 너희들은 단지 네 시간이나 여섯 시간만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시시각각으로 봉사의 무대에서 너희의 역할을 연기하는 신의 동반자들이다. 너희의 기억이 끊임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의 봉사 역시 끊임이 없다. 너희는 자신을 끊임없는 봉사자로 경험하느냐? 아니면 너희는 단 여덟 시간 또는 열 시간만 봉사하는 그런 봉사자이냐? 이 브라민 생은 기억과 봉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해야 할 다른 일이 있느냐?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의 전부다! 매 숨결마다, 매초마다 기억과 봉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봉사의 때와 기억의 때가 따로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아차. 너희는 균형이 있느냐? 너희가 100% 봉사를 한다면, 100%의 기억을 하느냐? 그 둘 사이에 균형이 있느냐? 차이가 있다, 그렇지 않느냐? 카르마 요기란 기억상태에 머물면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억과 봉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 둘 사이에 동등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 기억이 봉사보다 더 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봉사가 기억보다 커져서도 안 된다. 영혼과 몸이 무대에 있는 동안 그 둘은 함께 해야 한다. 그 둘이 분리될 수 있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기억과 봉사도 결합되어야 한다. 기억은 아버지와 대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의 자아 존중에 대해서도 기억해라. 너희가 아버지를 기억할 때 너희는 자동적으로 자아존중을 기억한다. 만약 너희들이 자아 존중이 없으면, 너희는 강력한 기억을 할 수 없다.

자아 존중은 아버지와 대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한 자아 존중은 아버지와 대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기억을 하는 자녀들은 끊임없는 수여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 즉, 데브타스(신인)가 될 것이다. 오늘 밥다다는 수여자의 모든 자녀들이 어느 정도로 수여자가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 모든 자녀들의 수여의 단계를 점검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결코 어떤 것이라도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주는 것을 생각한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너희가 가진 모든 낡은 것들을 달라고 할 때조차도 그 대신에 아버지는 너희에게 모든 새로운 것을 준다. 받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금 밥다다는 자녀들의 한 가지 주제가 마음에 들었다. 그것이 무슨 주제냐? 외국인들이 선택한 주제다. 그것이 무슨 주제냐? “시간의 부름(The Call of the Time)”이다.

밥다다는 자녀들에게서 “시간의 부름”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었다. 너희 자녀들은 밥다다가 세계와 너희 자녀들의 봉사 동반자라는 것을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밥다다는 현재 너희 자녀들에게 시간의 부름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었다. 너희 자녀들도 역시 현재의 때에 시간의 부름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너희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봉사를 위해 강의를 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은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너희 자신에게 물어 보아라: 시간의 부름이 너희에게 무엇인가? 현재의 때의 부름이란 무엇인가? 밥다다는 현재의 때에 따라 너희 모든 자녀들이 수여자로서의 의식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자기발전의 면에서 수여자로서의 느낌을 가지고 모든 이들에 대한 사랑이 드러난 형태로 보이느냐? “남들이 어떠하거나 누구이던 간에 상관없이 나는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해라. 수여자는 유한한 태도가 아니라 무한한 태도를 끊임없이 지닐 것이다. 수여자는 끊임없이 가득 차 있고 흘러 넘칠 것이다. 수여자는 끊임없는 용서의 대양 마스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유한한 산스카라나 다른 사람들의 산스카라가 드러난 형태로 있지 않고 잠겨 있을 것이다. “나는 주어야만 한다. 남들이 주거나 주지 않거나 간에 상관없이 나는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산스카라의 영향 아래에 있을 수 있는 영혼을 도와야 한다. “라고 생각해라. 그러면 어느

누구의 유한한 산스카라도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너희를 존중해주는 해주지 않은 간에 너희는 존중을 해주어야 한다. 너희는 이제 이처럼 수여자가 되는 느낌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너희 마음속에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라고 해서 안 된다. 그렇지만(but)이라는 말이 없게 하여라. “나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여라.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나 말이 너희에게 유용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너희는 어떤 것이라도 나쁜 것을 받겠느냐? 그러한 것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너희 머리 속에 스쳐지나가게 조차 하지 말아라. 그런 일은 너희의 머리에 들어오지도 말아야 한다. 그것이 나쁜 것이고 좋은 것이 아니므로 너희 머리카락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흡수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 대신에 수여자가 되고 좋은 소망과 순수한 느낌을 가져라.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말아라. 지금의 때에 의하여, 너희의 머리와 가슴이 비어지지 않으면 너희는 끊임없는 봉사자가 되지 못 할 것이다. 너희의 머리와 가슴이 뭔가로 바쁠 때 너희가 무슨 봉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여기가 너희들이 밖에서 여덟 시간 또는 열 시간을 일할 때와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여덟 시간이나 여섯 시간 봉사하는 봉사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끊임없는 봉사자가 되지 못 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봉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아는 사람들과 친척들을 통해서 봉사한다는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수여자, 봉사자가 되어라. 너희의 머리를 비어둠으로써 너희는 봉사에 있어 아버지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가슴을 끊임없이 깨끗하게 간직함으로써 너희는 봉사에 있어 아버지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 너희들 모두가 한 약속이 무엇이나? 너희는 아버지와 함께 머무르고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약속이다, 그렇지 않느냐? 바바가 먼저 가고 너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가 않다. 너희는 함께 머무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 않느냐? 아버지가 봉사하지 않는 채로 그냥 있느냐? 아버지는 기억조차 하지 않고는 머물 수가 없다. 아버지가 기억에 머무르는 만큼 너희들도 노력을 해서 기억에 머무른다. 너희들도 역시 그런 기억을 하지만, 노력과 집중을 해야만 된다. 아버지에게 따로 무엇이 존재하느냐? 지고의 영혼에게는 오로지 너희 영혼들 밖에 없다. 물론 모든 영혼은 등수대로다. 아버지는 너희 자녀들을 기억하지 않고는 지낼 수가 없다. 아버지가 너희 자녀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느냐? 너희들은 기억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느냐? 때때로 너희는 말썽을 부린다.

그때 너희는 무엇을 들었느냐? 시간의 부름은 “수여자가 되라” 는 것이다. (지금) 그것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 세상의 모든 영혼의 외침은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는 신인들이시여’ 다. 너희들은 특별한 사랑을 받는 신인들이다, 그렇지 않느냐? 어떤 형태가 됐건 너희는 모든 영혼들에게 특별한 신인들이다. 따라서 지금 모든 영혼들의 외침은: “특별한 신과 여신들이여, 변화를 가져오소서.” 다. 너희는 이 외침을 들을 수 있느냐? 판다브들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이 소리를 듣고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뭔가 구원을 주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너희들은 그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는 부르는 소리가 들리느냐? 너희는 때의 부름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고는 그저 모든 영혼들의 외침을 듣고만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신인들아, 이제 수여자로서의 너희의 형태가 겉으로 드러나게 하여라. 너희는 이제 주어야 한다. 어느 영혼도 불우한 채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되면 너희는 불평의 화환으로 장식될 것이다. 그들은 물론 불평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불평의 화환을 걸치게 될 특별한 신인들이나 아니면 꽃의 화환을 걸칠 신인이냐? 너희는 어떤 특별한 신인들이냐? 너희는 숭배받을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느냐? “나는 마지막으로 왔으니까 모든 연장자들만 수여자가 될 것이고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지 않다! 모든 이가 수여자가 되어야 한다.

마두반에 처음으로 온 사람들은 손을 들어보아라! 앗차. 이곳에 처음으로 온 자녀들, 너희는 수여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둘째 해나 셋째 해에 그렇게 될 것이냐? 지식을 1년 간 공부해온 자들도 수여자가 될 수 있느냐? (하 지.) 너희들은 매우 영리하다. 밥다다는 항상 너희의 용기를 보며 기쁘다. 너희가 일년이 되었던 심지어 여섯 달이 되었던 - 밥다다는 너희가 일년이 되었는지 육개월이 되었는지 안다 - 너희들이 심지어 한달이 되었던 간에 상관없이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 자신을 브라마 쿠마르 또는 쿠마리로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브라마 쿠마르나 쿠마리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 브라마로부터 유산을 받을 권리를 자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가 브라마를 너희의 아버지로 받아들일 때 너희는 쿠마르나 쿠마리가 된다. 따라서 너희 브라마 쿠마르와 쿠마리들은 아버지 쉬바와 아버지

브라마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차지하였다. 아니면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사람들은 유산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 한 달 된 사람들이 유산을 받게 되느냐? 너희는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남들에게 주는 수여자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가 무엇을 받았던 간에 너희는 그것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가 그를 너희의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와의 연결을 구축한 다면, 너희는 단 하루 만에도 너희의 유산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 이것은 좋아, 거기에 어떤 힘이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도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유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그저 관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해라는 자들이다. 너희가 가슴으로 바바를 너희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면 너희는 하루만에 너희의 유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너희 모두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 모두는 브라마 쿠마르와 쿠마리들이다,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너희는 아직도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이냐? 너희는 이미 그렇게 되었느냐 아니면 그렇게 되기 위해 이곳에 왔느냐? 아무도 너희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렇지 않느냐? 만약 누군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희는 브라마 쿠마르와 쿠마리들이 되는 대신에 그냥 쿠마르와 쿠마리들이 되겠느냐? 브라마 쿠마르와 쿠마리들이 되는 데에는 아주 많은 유익이 있다. 단 한 생에 해당되는 유익이 아니라 많은 생들을 위한 유익이 있다. 너희는 너희 생의 절반 또는 사분의 일을 노력하고서 그에 대해 받는 보상은 여러 생을 위한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에게는 유익 밖에 없다. 현재 때에 따라, 밥다다는 특히 너희의 주의를 한 가지에 집중시킨다. 왜냐하면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의 결과(result)를 끊임없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결과에서 바바는 너희가 매우 큰 용기를 갖고 있음을 보았다. 너희는 또한 매우 좋은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너희의 목표에 비추어 보면 심지어 지금도 너희의 목표와 그에 합당한 자격 사이에 차이가 있다. 너희 모두의 목표는 일등을 차지하는 것이다. 만일 밥다다가 누구에게라도 너희의 목표가 21생 동안 왕국의 행운을 차지하는 것인지, 태양왕조의 일부가 되는 것인지, 또는 달의 왕조의 일부가 되는 것인지를 물으면 너희들은 모두 무엇에 손을 들겠느냐? 태양왕조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에 손을 들 것이다. 누구라도 달의 왕조의 일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너희들 중 누구라도 라마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라마가 되어야 한다. 누군가는 라마가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손을 들었다.) 좋다. 그렇지 않으면 라마의 자리는 비어있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두 아주 좋은 목표를 갖고 있다. 너희의 자격이 너희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이 말을 오늘 들었는데, 그것은 너희가 때때로 단순히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일어나야만 한다, 이 사람은 이것을 해야만 한다, 이 사람은 도와야만 한다, 저 사람이 변하면 나도 변할 것이다. 이 상황이 괜찮았으면 나도 괜찮았을 거야.” 이러한 말들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수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뭔가를 주던 주지 않던 간에 상관없이, 아버지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바바가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더 적게 주었느냐? 누구에게나 단 한가지(course)만 준다. 너희가 지식을 받은지 60년이 되었던 단 한 달이 되었던 간에 상관없이, 너희는 모두 같은 코스를 거친다. 아니면, 60년 된 사람의 코스는 단 한 달 된 사람의 코스와 다른가? 그들도 요즈음 너희가 받는 것과 똑같은 코스를 했다. 지식도 같고, 너희가 받는 사랑과 모든 힘도 같다; 모든 것이 똑 같다. 바바가 어떤 사람에게는 16가지 힘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8가지 힘만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모두가 똑 같은 유산을 받았다. 바바가 너희를 모두 가득 차고 흘러 넘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영혼들이 수여자가 될 것이다. 아직도 받고 있는 자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주던 주지 않던 간에 상관없이, 나는 주고자 하는 욕망을 가져야하고 받고자하는 욕망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너희가 수여자로써 많이 주면 줄수록 너희의 보물은 늘어날 것이다. 예를 들면, 너희가 누군가를 존중해줄 때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주는 것이 아니다. 준다는 것은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받지를 말고 그 대신에 주면 그것이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시간의 부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겠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수여자”라는 한 단어를 기억하여라.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저 “수여자”라는 한 단어를 기억하고, 욕망에 대한 모든 지식에서 무지해 져라. 미묘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차원에서든 어떤 욕망도 없어야 한다. 수여자란 욕망에 대한 모든 지식에서 완전히 무지한 사람, 즉 가득 찬 사람을 의미한다. 너희는 받고자하는 욕망을 야기시킬 수 있는 어떤 부족한 느낌도 경험하지 않는다. 너희는 모든 성취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것

은 완전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너희는 무엇이든 너희가 받는 것에 대해 행복하냐? 완전해진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다.

오늘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첫 번째 기회를 차지했고, 따라서 너희는 특별히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바라트의)은 오지 않도록 한 반면, 외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은 초청되었다. 밥다다는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지만, 밥다다는 이중 외국인들과 그들의 용기를 보며 더욱 행복하다. 현재 너희에게는 격변이 그리 많지 않다. 이제 다르다. 처음에 너희들은 인도문화와 외국문화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다. 이제 너희는 그것을 이해했다. 이제 너희는 브라민 문화에 속한다. 그것은 인도문화도 외국문화도 아니다! 그것은 이제 브라민 문화다! 인도문화는 일을 약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지만 브라민 문화는 쉽다. 브라민 문화는 너희의 자아 존중심을 유지하고 올바른 자아 주권을 찾는 것이다. 이것이 브라민 문화다. 너희는 이것을 좋아한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는 인도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의문이 이제 없다,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그것이 어려우냐? 그것은 쉬워졌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집에 돌아가서 그렇게 (편지에) 쓰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이 쉽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약간 어렵다라고 쓰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이 쉬우냐? 아니면 약간 어려우냐? 그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그것은 매우 쉽다. 모든 게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분이 좋다. 너희는 이제 매우 강해졌다. 어린 시절의 게임은 모두 끝났다. 너희들 모두는 이제 숙련된 자들이 되었다. 밥다다는 오래된 사람들이 더 강해질수록 새로운 사람들 역시 더 강해지는 것을 본다. अच्छा(좋다). 너희들이 서로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다. 너희는 노력을 잘하고 있다. 너희는 이제 일어난 일들을 다들들에게 가져가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는 지금도 이야기와 사건들을 다들들에게 가지고 가느냐? 그것은 줄어들었다! 이제 달라졌다, 그렇지 않느냐? (다디 장키에게) 그러므로 이제 너는 몸이 아파서는 안 된다! 너는 모든 이야기와 사건들 때문에 병이 났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모두 끝났다. 너는 훌륭하다. 너희들 모두 최고의 특별한 미덕을 갖고 있다: 너희 마음의 청결함은 매우 좋다. 너희는 아무 것도 속으로 감추어두지 않는다: 너희는 모든 것을 없앤다. 어떤 상황이라도 너희는 정직하게 그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것은 이렇지 않고, 이러합니다”. 너희는 돌려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 이 특기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한다: 아버지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보고 기뻐한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것이다! 그 밖의 다른 것은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는 강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길을 따를 때에는 그것을 완전히 따른다. 따르지 않으려면 일체 따르지 않는다. अच्छा.

너희들은 일초 만에 날 수 있느냐? 너희의 날개는 강력하다, 그렇지 않느냐? 바바라는 말을 하자마자 너희는 난다. (바바가 훈련을 실시하였다)

아버지처럼 수여자로서 고귀한 느낌을 갖는 전세계 모든 곳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기억과 봉사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고양된 영혼들에게; 자신의 목표와 자격을 동등하게 만드는 모든 신의 봉사의 동반자들에게; 끊임없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대등하며, 가깝고, 밥다다의 눈의 별들인 자녀들에게;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자비로운 느낌을 갖는 자비로운 영혼들에게; 바바 곁에 앉아 있거나 마두반의 아래(메디테이션 홀, 히스토리 홀) 앉아있는 용서의 대양 마스터들에게, 그리고 밥다다 앞에 앉아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축 복: 수백만 배로 행운이 있게 되어 너희들의 고귀한 행운에 대한 도취감과 행복을 끊임없이 유지하여라.

전 세계에서 종교 창시자나 세계적인 구루라고 불리는 이들 중 그 누구도 영적인 탄생이나 신으로부터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해주는 부양을 받는 이는 없다. 그들은 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꿈속에서조차도 경험하지 못하는 반면, 너희 수백만 배로 고귀한 영혼들은 어머니, 아버지와 그리고 모든 관계로부터 매일 사랑과 기억을 받는다. 전능한 권위자 아버지 자신이 너희 자녀들의 하인이 되어 매 발걸음마다 그의 동반자로서 함께 한다. 이 고귀한 행운에 대한 도취감과 행복을 유지하여라.

슬로건: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복에 대한 강력한 생각을 가져라.

*** 움 산티 OM SHANTI ***